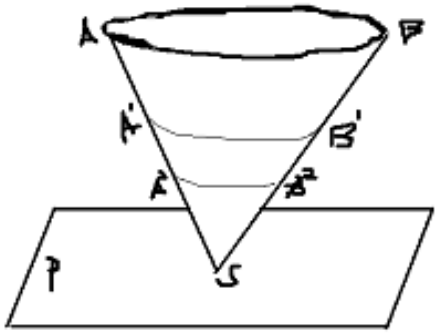
제15강 물질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기억, 망각, 상기)

(1교시)

◆물리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 그리고 존재론
※학습목표: 물리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의 역할과 차이를 살피고, 들뢰즈의 존재론을 다시금 살핀다.

▲물리적 반복, 정신적 반복
-들뢰즈가 말하는 물질과 정신은 전통철학의 맥락과 다르다.
-계속 흘러가면서 과거를 형성해가는 수평적 구도가 물질적 반복이다. 반면 원뿔을 갖는 모델, 즉 정신적 반복은 항상 virtual과 actual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늘 차이를 낳는다. 그래서 전자를 '헐벗은 반복', 후자를 '옷 입은 반복'이라 한다.



베르그송의 원뿔

▲물리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의 범위
「두 가지 반복, 물질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물질적 반복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계속 이어지는 요소나 순간들의 반복이다. 반면 정신적인 반복은 공존하는 상이한 수준들에서 일어나는 전체의 반복이다.」
-원뿔 안에는 여러 수준들이 공존하고 있다.

▲물리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의 성격차이
「이 두 가지 반복이 차이자체와 관계 짓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요소나 순간들은 어떤 살아있는 현재 안으로 수축되고, 그런 한에서 차이는 물질적 반복으로부터 훔쳐내는 대상이다. 반면 전체는 자신의 수준들 사이의 차이를 포괄하고, 그런 한에서 차이는 정신적 반복 안에 놓여 있다. 앞의 반복은 ***헐벗은 반복****이고 뒤의 반복은* ***옷 입은 반복****이다. 전자는 부분들의 반복이고 후자는 전체의 반복이다. 하나는 계속 이어지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공존하는 반복이다.* ***전자는 현행적actual이고 후자는 잠재적virtual이다.*** *전자는 수평적 반복이고 후자는 수직적 반복이다. 현재는 언제나 수축된 차이다. 하지만 물질적 반복의 경우 현재는 서로 무관심한 순간들을 수축한다.」*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의 뉘앙스는 원래 물질적 반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축한

www.artnstudy.com

다. 그런데 이 수축은 원뿔식의 기억에서 이루어진다.
-'계속이 이어지는'은 계기(繼起)succession을 뜻한다.
-현재는 항상 수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그러나 물리적 반복의 경우 서로 관계없이 떨어진 순간을 수축한다.

▲물질, 정신의 이완
「*반면 정신적 반복의 경우 현재는 극한에 이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의 수준을 수축한다. 이 수준은 그 자체로 이완이나 수축의 상태에 있는 전체 안에서 변별적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현재들 자체의 차이는 두 반복 사이에 놓인다. 하나의 반복은 요소적 순간들의 반복이며, 이때 차이는 이 순간들에서 훔쳐내는 그 무엇이다. 이에 비해서 다른 하나의 반복은 전체가 지닌 수준들의 반복이며, 이때 차이는 이 수준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베르그송의 가설에 따르자면, 우리는 헐벗은 반복을 옷 입은 반복의 겉봉투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순간들의 반복은 공존하는 수준들 중에서도 지극히 이완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질은 정신의 지극히 이완된 과거이거나 꿈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반복 중 어느 것도 재현 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물질적 반복은 성립하는 동시에 와해되기 때문이다. 물질적 반복은 오로지 계산과 보존의 공간 안에 그 반복의 요소들을 투사하는 능동적 종합에 의해서만 재현된다.*」
-정신(생명)이 응축된 것이라면, 물질은 정신과 별개의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정신이 최대한 이완된 것이다. 이는 『천의 고원』에서의 강도 0의 물질, 순간적 정신mens momentanea다.
-정신이 이완된다는 것은 정신이 공간에 펴진다는 것이다. 공간에 펴지면 그것은 외연이다. 즉 데카르트의 res extensa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질적 반복과 표상
「*하지만 동시에 이 반복은 표상의 대상이 되자마자 요소들의 동일성이나 보존되고 합산된 유사성에 종속된다. 그리고 정신적 반복이 과거의 즉자 존재 안에서 성립한다면, 표상은 단지 능동적 종합안의 어떤 현재들을 포착하고 그 현재들에 관련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표상을 통해 모든 반복은 반조 안의 현행적 현재의 동일성에, 그리고 재생 안의 사라진 현재의 유사성에 종속된다*」
-본문에는 재현이라 되어 있지만, 문맥상 표상으로 고쳤다.

▲기억의 수동적 종합과 상기
「*수동적 종합들은 분명 재현(표상) 이하의 사태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전적으로 과연 우리가 기억의 수동적 종합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를테면 습관의 수동적 종합을 체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과거의 즉자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 과거 전체는 즉자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보존된다. 하지만 어떻게 그 과거를 우리에 대해 되살려낼 것인가? 과거의 즉자 존재를 과거가 한때 구가했던 현재나 과거가 과거이기 위해 거리를 둔 현행적 현재로 환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존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존재를 우리에 대해 되살려낼 것인가? 바로 이 부근에서 프루스트는 베르그송의 뒤를 이어 다시 묻고 있다. 그런데 대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어져 있는 것 같다. 플라톤적 의미의 상기recollection가 바로 그것이다.*」

www.artnstudy.com

-자신의 과거를 안는 것, 인간의 집합으로 역사를 아는 것, 우주의 역사를 아는 것 등은 원뿔로 내려가는 것이다.
-엄청난 층의 과거 안, 수면 밑(망각의 경계)에 있다(idea). 있는 것인데 이를 수면 위로 떠올리는 것이다(상기).

▲기억, 망각과 상기
*「사실 상기는 자발적 기억의 모든 능동적 종합과는 본성상 다른 어떤 수동적 종합이나 비-자발적 기억을 지칭한다. 콩브레는 과거에 현전했던 모습 그대로, 혹은 앞으로 현전할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결코 체험된 적이 없었던 어떤 광채 안에서, 결국 이중의 환원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어떤 순수 과거로 다시 나타날 뿐이다. 이 순수 과거는 자신이 언젠가 구가했던 현재로도, 언젠가 구가할 수도 있을 현행적 현재로도 환원되지 않으며, 이런 이중의 환원 불가능성은 그 두 현재의 상호 충돌에 힘입어 있다. 망각이 경험적으로 극복되는 한에서 사라진 현재들은 망각 저편의 능동적 종합안에서 재현된다. 하지만 콩브레가 결코 현전했던 적이 없는 어떤 과거의 형태로 출현하는 것, 곧 콩브레의 즉자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본연의 망각** 안에서이다.」*
-'비자발적'이란 비 actual하다는 뜻이다.
-본연의 망각. 이데아를 보았다가 레테의 강으로 떨어져 형성된 거대한 망각의 차원이다. 거기에서부터 상기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Marcel Proust(1871.7.10~1922.11.8) 프랑스의 소설가
Combray: Marcel Proust의 소설『잃어버린 시간』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다.

▲물음
*「그것은 여기서 아득한 태고의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과거의 즉자 존재가 있다면, 상기는 그것의 본체이거나 그 본체에 사로잡힌 사유다. 상기를 통해 우리는 단지 어떤 현행적 현재에서 사라진 현재들로, 최근의 사랑들에서 유년 시절의 사랑에게로, 연인들에게서 어머니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지나가는 현재들의 관계가 순수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순수 과거는 지나가는 현재들에 힘입고 또 그 현재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재현 아래에서 나타난다. 즉 동정녀는 결코 체험된 적이 없었으며 연인의 저편에, 어머니의 저편에 있지만, 연인과 공존하고 어머니와 동시간적으로 존재한다. 현재는 실존한다. 하지만 오로지 과거만이 고집스럽게 자신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속하며, 그 안에서 현재들이 지나가고 서로 충돌하는 요소를 제공한다. 두 현재 사이의 반향은 단지 끈덕지게 향존하는 어떤 **물음**만을 형성한다.」*

www.artnstudy.com

-항상 insist하는 과거가 상기의 근거이고, 상기가 일어난 데는 물음이 중요하다.

▲응답이 오는 방향, 미래

「그 물음은 찾고 답하고 해결하라는 엄격한 명령 아래 재현 안에서 어떤 문제의 장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응답은 항상 다른 쪽에서 온다. 즉 모든 상기는 마을과 관련되어 있든 여자와 관련되어 있든 상관없이 에로스의 성격을 띤다. 우리가 즉자의 순수 과거 안으로, 이 처녀의 반복, 곧 므네모시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에로스, 본체 때문이다. 에로스는 므네모시네의 동반자, 약혼자이다. 에로스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째서 순수과거에 대한 탐색은 에로스적인가? 어째서 에로스는 물음과 대답들의 비밀을, 우리의 실존 전체 안에서 내속하는 어떤 끈덕진 주장의 비밀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마지막 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이 없다면.....」

-응답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다. 이유는 상기할 적에 이미 과거만이 아니라 자신의 바램이나 미래를 구체화시켜서 상기하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이원론과 일원론(존재론)

-들뢰즈는 많은 면에서 베르그송주의자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물질과 생명의 투쟁이다. 그런데 물질과 생명이 실체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실체의 두 측면이다. 즉 모든 조재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과 생명성이라 보면 된다.

-들뢰즈는 물질성의 측면에서 반복(요소들의)과 생명의 차원의 반복(원뿔)을 대비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차이를 동반하고 차이와 창조의 바탕이 되는 의미에서의 반복과, 그냥 물리적 메커니즘에 따른 반복의 구분이다.

-들뢰즈는 이원론자다. 그러나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으로 시작해서 일원론으로 봉합한다. 여기서의 봉합이 베르그송이나 들뢰즈의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들뢰즈의 이원론을 어떤 실체적 구분, 논리적 구분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들뢰즈는 한 존재가 움직이는 방향성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속적 운동으로 파악해야 한다.

www.artnstudy.com